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을 위한 기도

스쳐 지나쳤던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위해 잠시 기도를 올립니다.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서린 터진 입술때문에 유난히 망가져 보였던 그 여인이
자꾸 생각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쳐온 나를 조금 자책합니다.

너무 순간적이어서 저사람은 진짜까 가짜까 생각하는 사이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저의 핑계는 가로등이 너무 어두웠다는 것,

고작 시속 40 킬로미터가 너무 빨랐다는 것,

그리고 속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의 핑계는 항상 시시합니다. 그러나 고민만은 항상 무겁습니다.

그 여인의 일년 양식 값을 고급 식당에 앉아 한끼에 마셔버리고도 그걸 1년 내내 반복하는
느끼한 사내와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이 가진 영혼의 질량은 어떤 이유에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런 기울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향한 나의 답은 너희"라고 그렇게만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임께서 육신의 한계에 자신을 가두고 오셨을 때 갇히셨던 육체가 지금 우리의 한계입니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답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 세상이 품은 문제의 일부인 것이 얼마나 버거운
역설인지요.

임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을 향한 답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깔리는 거리를 의미하나마 비추는 가로등으로 거기서 끄져 버려주는 것"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에게 시속 40 킬로미터보단 조금 더 여유로운 어깨가 되어주는 것"

"때로는 속어는 자에게 바보처럼 내어주는 빈 틈이 그를 돌이키게 하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

네, 고작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마저도 벅거운 무게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둠입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입니다.

어둔 거리에 선 헝클어진 머리의 여인이 우리입니다.

세상이 품은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나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

키국

윤지오 드림

